

새싹 불자를
키웁시다

조계종 포교원 ·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불완전한 사회제도에서 고통받는 '개인' 묘사

우리가 꼭꼭 씹어 먹기

여름휴가는 다녀왔나요? 특별히 휴가를 다녀오지 못했더라도 하루쯤 시간을 내어 모래톱을 보고 오거나 산재곡이나 샬여울에 발이라도 담그고 오면 재충전이 되지 않을까요?

치사랑: 손아랫사람이 손윗사람을 사랑함. 또는 그런 사랑.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는 옛말은 참말로 그릇되지 않은 말이로다.) <이양하, 어머니의 기억>

모래톱: 강이나 바닷가에 모래가 널리 깔려 있는 곳. 모래사장이라고도 하지요. (산모퉁이를 돌아오는 바람에 잔파도가 일어나서 모래톱을 훑듯이 때려댔다.) <한승원, 해일>

봉머리: 산봉우리의 맨 위.

꾸중: '꾸지람'의 높임말. 아랫사람의 잘못을 나무라는 것을 꾸지람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윗사람의 입장에서 '꾸지람'을 하는 것이고 아랫사람의 입장에서 '꾸중'을 듣는 거지요.

살여울: 물살이 급하고 빠른 여울물. 유달리 센 여울. (물이 살같이 빠르니 살여울이라고 짓고.) <이광수, 흙> 여기서, 살여울의 살은 화살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화살처럼 빠르게 흐르는 여울이라는 의미가 담긴 거지요.

안명옥(시인 · 고양애고 문예창작반 강사)

논술의 자신감 이 책은 꼭 읽어야 해

틀스토이 작 '부활'

'부활'은 '전쟁과 평화' '안나카레리나'와 더불어 틀스토이의 3대 작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로망 플랑은 '부활'을 놓고 "틀스토이의 문학적 유언서 혹은 예술적 성서"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지요. '부활'이라고 하면 카츄사와 네플류도프와의 달콤한 사랑 이야기로 생각하는 데 연애적 요소는 작은 주제에 지나지 않지요. 그보다는 틀스토이의 사상, 종교, 예술의 완성에 대한 추구가 71세의 노령에 이르러서도 이처럼 생기 왕성하고 위대한 결실을 장작하게 했는가 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지요. 허위와 죄악에 가득 찬 당시 러시아의 귀족 사회나 사회 환경을 그림으로써 그 불합리를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기도 해요. 또한 무서운 죄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고통에 의한 자기 정화를 강조하며, 사회악을 바로 잡기 위해 세속적 욕망을 포기할 것을 말하기도 하지요.

어머니가 일하던 주인집에서 길러진 고아 카츄사는 그 집 아들 네플류도프를 사랑한다. 청년 사관이고 공작인 네플류도프는 순결하고 아름다운 카츄사를 자신의 정육의 대상으로 능력하고는 군에 입대한다. 버림받은 카츄사는 임신을 하고 주인집에서 쫓겨나 낳은 아이마저 죽은 후 윤라의

구렁덩덩으로 빠져 죄를 범한다. 어느 날 재판소의 배심원으로 나온 네플류도프 공작은 살인죄도 혐의로 재판받는 카츄사를 만난다. 네플류도프는 그녀의 타락 원인이 자기의 무책임한 행동에 있음을 깨닫는다. 후회와 양심의 가책으로 그녀의 생활을 다시 갱생시키려고 귀족처녀와의 약혼도 파혼하고 온갖 노력을 다 한다. 귀족사회에 속한 자기 생활 태도에 대하여 깊은 의욕을 품게 되고, 동시에 남의 노력으로 포식하게 되는 토지 사유제에 대하여 회의를 갖게 된다. 카츄사의 감형운동을 위하여 감옥에 드나드는 동안에 그는 도움을 바라는

원숙하고 정밀한 심리 묘사로 사회조직의 허점 날카롭게 비판

무고한 죄인들과 그에 대한 냉혹한 불합리를 목격하게 된다. 그는 일신의 정리를 위해서 자기 영지에 내려가서 농촌의 공립을 눈앞에 보게 되고 또 뻘째르부르크에 가서 유력자들을 찾아다니는 동안 귀족 사회의 경박함과 부패를 다시금 인식하게 된다. 그리하여 재판소에서의 인상이 사회 비판과 현대 문명에 대한 규탄으로까지 확대된다. 제1부에서는 재판소와 감옥을 중심으로 한 사법 형벌의 세계가, 제2부에서는 자기 영지의 농민과 뻘째르부르크 상류사회 묘사와 죄인호송대의 출발 전후의 사건이, 제3부에서는 시베리아의 죄인호송 여행 이야기가 다루어지고 있다.

생생하게 표현한 죄인들의 생활, 시문손을 비롯한 남부 혁명가들의 생활은 당시의 사회를 아는 데 좋은 자료가 되고 있어요. 또한 양심이 마비된 재판관, 부패한 관리, 상류사회 귀족들이 경멸적으로 그려진 모습은 이 나라에 혁명이 불가피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요. 더구나 정부의 주구였던 러시아 정교회의 공허함이 여지없이 풍자되고 있어요. 제정 러시아의 사회생활뿐 아니라, 그 불완전한 사회제도 아래서 신음하고 있던 국민의 이상과 고통과 양심이 틀스토이의 양심을 통해서 '부활' 속에 묘사됐지요.

틀스토이는 이 작품 속에서 토지문제에 큰 비중을 두어 다루고 있기도 해요. 그 자신이 큰 영지를 가진 대지주였으며, 국민의 대부분이 농사에 매달려 사는 러시아의 형편에서 이 문제를 외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작품 속 스벤서의 <사회평형론>을 읽고 감명을 받은 네플류도프가 대학 졸업 논문을 (토지사유권)으로 쓰고, 자신의 사상을 실증하기 위해서 상속받은 토지를 농민에게 분배해 준다는 이야기가 넣어 의의를 부여했던 거죠.

틀스토이는 수많은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당시의 잔인한 러시아의 사회조직에 대하여 예리한 비판을 하며 어떠한 권위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당시의 제도, 도덕, 생활양식을 비판했지요. 그는 '부활'이라는 대작에서 예술적 원숙미와 정밀한 심리 묘사를 통해 당시의 사회 조직이나 법률의 허점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어요. 오늘 날 사회제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하지요.

안명옥(시인 · 고양애고 문예창작반 강사)

우리의 생각

'우리들의 생각' 코너는 사찰 게시판에 올라온 어린이,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은 공간입니다. 불교계에 바라는 점, 입사상담과 교우문제 등 주제 · 형식을 벗어나 여러분이 직접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접수 e-메일:rolling@paran.com)

부모님과 대화, 답답해요?

부모님과 말이 통하지 않아요. 뭐든 시키는 대로 하기만을 바라시고 제 말은 아예 안 들어요. 정말 답답하고 화나요. 어떤 때는 정말 집을 나가버리고 싶어요 (ID:midsarang)

결론 보겠다는 식의 대화보다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

부모님과 대화가 좀 더 잘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우선 어떤 경우에 대화가 특히 더 잘 안되고 어떤 경우는 좀 나아졌는지 생각해 보세요. 나의 어떤 행동, 어떤 말, 그리고 어떤 자세나 표정이 대화를 좀 더 잘 되게 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그 행동이나 말을 더 활용하도록 노력한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부모님들은 자녀가 공손하면서도 진지한 태도로 대화를 요청할 때 진지한 자세로 대화에 응하게 된다고 하세요. 그리고 지금 당장 이야기 듣고 싶다고 하는 것보다 부모님이 대화를 하실 마음의 준비를 갖추실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는 것이 더 좋겠지요. 한 번에 결론을 보겠다는 마음은 오히려 대화를 더 망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말을 잘 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말을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잘 들느냐에 관심과 노력을 쏟는다면 대화를 더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표면적으로 하시는 말씀 뒤에 깊이 들어 있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면서 부모님과 대화를 해 보세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비난이나 불평, 따지는 말이 대화의 주된 내용이 되면 대화가 깨져버리게 됩니다. 비난이나 불평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먼저 '내가 왜 이런 불만을 가지게 되었는지, 진짜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갑자기 부모님과 대화를 시작하려면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편지나 쪽지를 써 보세요. 부모님과 대화가 잘 되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 진지한 대화를 해 보고 싶은 마음을 글로 써서 드러 보세요. 부모님과 대화 시간을 열어 줄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한국사이버상담개발원)

1. "논술의 자신감, 이 책은 꼭 읽어야 해" by: 경숙조

2. "세상이 변하는 것이려면, 그것은 생각의 힘이 우리 삶을 만들어가기 때문이다!"

3. "영성학을 쓰던 당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위장병으로 시달리고 있었으며 매일 많은 악몽을 겪어야 했습니다."

4. "모든 이의 존경을 받으려 하려는 욕망은 나이가 들면서 철학자로서의 마음이 약해져 가는 것 같아요?"

5. "영성학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전쟁터의 막사에서 집필한 책입니다."

6. "그는 격투의 스토리들을 영성학을 통해 풀었던 것 같습니다."

7.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황제 영에도 철학자 지위를 얻고 연구했습니다. 황제 영이 때문에 그에게는 더욱 더 철학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8. "아름다운 내 마음, 내 마음은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은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은 내 마음입니다."

9. "황제는 전쟁의 격투에 치여 전장에서 병사했습니다."

10. "이 위대한 황제가 죽은 후 로마 제국의 새로운 주인이 된 코모두스는 폭군이 되었고, 로마 제국은 급속히 쇠퇴하였습니다."

11.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황제 영에도 철학자 지위를 얻고 연구했습니다. 황제 영이 때문에 그에게는 더욱 더 철학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12.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황제 영에도 철학자 지위를 얻고 연구했습니다. 황제 영이 때문에 그에게는 더욱 더 철학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양지 국악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 승무북, 모듬북, 장고, 징, 팽과리

- ◆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릅니다
- ◆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 합니다
- ◆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 갑니다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u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ukukak.com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운

해동불교미술원

016-219-7180 / 011-743-5167

수제화로 제작 상표등록 614981호, 디자인등록 0407120호, 발명특허 0554383호

고무신코 만행화

■ 소재특징: 초극세사, 방수원단

사계절 단화 기입식 깔창 기입식 깔창 민사 단화

• 가격: 80,000원 • 가격: 70,000원
• 규격: 215-290mm • 규격: 215-290mm
• 색상: 회색, 검정 • 색상: 회색, 검정

발건장 지압 샌들 발볼조절기능 건강슬리퍼

장기간 보행시 발이 편안합니다 미끄럼 방지 (논슬립 유레탄)

• 가격: 90,000원 • 가격: 50,000원
• 규격: 230-280mm (10mm 단위) • 규격: 230-280mm (10mm 단위)
• 색상: 회색, 검정 • 색상: 진회색

■ 문의 및 주문전화: 02)733-5715, 011-9000-5715

■ 입금계좌: 농협 063-12-250427(구자민) 네이버(NAVER) 주소창에 한글 '만행화'를 치세요!!

■ 보시 하실 분 상담 환영

전국매장: 부산: 원광사 051)636-7019 대구: 연꽃세상 053)426-7300 전주: 상운각 063)274-6639
광주: 불교서원 062)226-3056 / 화신승복 062)228-2870 서울: 부산승복 02)738-8407
대전: 불교백화점 042)274-3727 / 대구승복 042)254-8772 제주: 김용경승복 064)724-7999
충북(충주) 원심사 불교점 043)846-9091 경북(예천) 불타불교점 054)655-2525